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 살아지다2 ‘승기천을 기억하다’				
구술자명	박광현	면담자	남희현		
면담장소	문학동 호산아파트 인근 카페	면담지원	-		
면담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오후7시, 12월 15일(일) 오전8시30분	회차	2	시간	82분 18초
자료번호	MichuholCA-07-00001153				
구술 개요	문학에서 4대째 살고 있음. 문학산의 전통을 물려주고 싶음. 문학산은 원래 배꼽산으로 불림. 미군이 주둔하는 동안 문학산성이 많이 파괴됨. 민간인은 문학산성을 보러 들어갈 수 없었음. 승기천은 독정지에서 동양장 일대로 이어짐. 동양장사거리에서 석바위로 가는 장다리가 있었음. 승기천에서 물놀이, 참게 잡이를 했던 기억. 아이들을 위해 역사, 문화, 생태계를 살려야 함.				
주요 색인어	문학산, 승기천, 가재, 싱아, 미군, 배꼽산, 문학산성, 독정지, 동양장, 석바위, 장다리, 순복음교회, 저수지, 물놀이, 참게, 승학산, 역사, 생태계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어린 시절 문학산에 대한 기억			00:03:09~ 00:18:05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문학에서 4대째 살고 있음. 문학산의 전통을 후세에 물려주고 싶은 열망이 있음. - 어린 시절 승기천에서 물장구 치고 놀던 기억이 있어 승기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문학산에서 가재를 잡거나 싱아를 뜯어 먹었던 기억이 있음. - 미군이 들어오면서 중학교 재학 중 문학산이 깎이게 됨. - 문학산이 깎이기 전에는 봉우리가 무덤같이 둥글게 되어있어 ‘배꼽산’ 이라고 부름. - 산을 깎는 과정에서 폭파된 문학산성의 바위 파편이 동네로 날아옴.					
2. 문학산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			00:18:06~ 00:25:35		
- 군대를 다녀온 이후로 지역의 일을 많이 하기 시작함. - 책에 나온 문학산성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됨. - 당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민간인은 산성을 보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음. - (문학산성 개방에 대한) 서명을 혼자서 받다가 시민단체와 협력하게 됨. - 의원으로 일하며 올라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미 문학산성은 다 깨지고 무너져 있었음.					

3. 승기천 일대		
- 독쟁이(독정이)에서 조그맣게 내려오다가 동양장(승기사거리)에 와서는 큰 개천을 이룬. - 동양장사거리에서 석바위로 가는 다리를 ‘장다리’ 라고 함. - 당시에는 주변이 논밭이었기 때문에 마차가 다닐 정도의 다리였음. - 장다리를 건너면 현재 석바위사거리 일대로 이어짐. 당시의 주도로로 절, 대장간, 술집 등이 있었음. - 관교동 개발 전 순복음교회 주변에 큰 저수지가 있었고, 승기천 물줄기가 같이 돌았음.	00:25:36~ 00:34:43, 00:41:25~ 00:44:14	
4. 승기천에 대한 추억		
- 여름에 수로에서 물놀이를 했음. - 비가 오면 독이 잘 무너지곤 했음. - 장다리는 사람이 왕래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다리였음.	00:34:44~ 00:38:02	
5. 미추홀구의 살아있는 자연		
- 가을에는 농수로에 있던 참게를 잡기도 함. - 문학산 개울에서 빨래를 하거나 송이버섯을 발견하기도 함. - 승학산은 인천 시내 사람들의 놀이터 같은 곳으로, 물줄기가 풍부했는데 이 물이 승기천과도 만났을 것.	00:38:03~ 00:39:46, 00:45:45~ 00:54:06	
6. 마무리		
- 아이들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역사와 문화,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는 아쉬움.	00:55:39~ 00:56:17	